

‘온라인’ 예배 ‘온전한’ 예배로

성경·헌금 등 미리 준비... 시작전 가족과 담소로 교제 나누기도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서 교회의 예배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 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교회의 예배 자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난 주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주일예배를 드렸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기 전까지 당분간 ‘온라인 예배’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온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 메뉴얼’을 펴낸 이길주 목사(C.S.I Bridge 대표, 유튜브 ‘길목TV’ 등 운영자)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가정예배가 흘러가지 못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할 수 있고 △헌금이 줄어들며 △활동이 위축되고 △교제감 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성경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예배의 장소만 바꾼 것일 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니다”면서 “다만 그동안 한 장소에서 한 공동체로 예배하던 것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적용할 시간이 필요하고, 각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준비되고 정착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목사는 메뉴얼을 통해 온라인 예배할 때 유의해서 구성해야 할 순서로 찬양대, 헌금, 설교, 주보를 꼽았다. 찬양대는 독창을 미리 선정해 교회에서 미리 준비하거나 기존 찬양대 특성을 영상으로 준비해 송출하고 혹은 찬양영상을 준비해 재생할 것을 추천했다. 또 헌금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도록 안내하고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주는 것을 추천했다. 계좌이체를 하도록 시간을 배려하고 이 시간동안 감사기도를 올리는 시간으로 2-3분 정도 보내는 것도 좋겠다는 것.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교회학교 어린이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듣고 있는 모습.

치한 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때 스마트폰을 사용해 스트리밍할 경우 구독자 1000명이 안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처음 사용할 경우 24시간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이럴 경우, Prism live studio 앱을 설치한 후 구글 계정으로 연동하면 1000명 상관없이 스트리밍 할 수 있으니 급한 경우 이 앱을 이용하면 좋다. 녹화할 때, 스마트폰과 설교자가 각각 크면 오디오 전달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이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온라인 예배할 때 사실 비디오보다 오디오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유선 핀 마이크나 무선 핀 마이크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핀마이크는 일반 핀마이크와는 다르기 때문에 꼭 핀수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또 주변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단일방향성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마이크 수화부족에서 들리는 음성만 주로 들어가게 하는 마이크다.

▶노트북으로 할 경우
노트북이 있고 노트북에 웹캠이 달려 있으면 유튜브를 이용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로그인 한 후 ‘동영상’을 눌러 ‘스트리밍’을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오디오는 스마트폰 할 때와 같이 따로 핀마이크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노트북의 웹캠은 대부분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방송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존 교회에 설치된 음향 시스템이 있고, 비

디오도 스위처까지 있는 경우 이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송출할 하도록 준비하면 된다. 이럴 경우, 기존 장비의 신호를 컴퓨터로 입력 신호로 바꾸어주는 단계가 필요하다. 오디오의 경우 앱을 통해 나오는 출력단자를 3.5쪽으로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비디오의 경우만 신경쓰면 된다. 스위처 장비가 있는 경우 스위처의 출력인 hdmi를 USB 캡처장치를 통해 컴퓨터로 입력하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하다. 방송장비가 없고 캡코더나 카메라 한대만 있는 경우에도 hdmi출력 단자를 캡처장치를 이용해 컴퓨터로 입력하면 된다.

이와관련 한국교회저작권협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대구, 부산 지역교회의 아픔에 공감하며 3월 한 달 동안 저작권 사용허락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1개월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 사용허락에 대한 비용은 한국교회저작권협회에 가입된 여의도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호산나교회 등 한국교회저작권협회 회원교회의 회비 중 일부를 통해 사용되어진다. 1개월 멤버십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대구, 부산 지역교회는 교회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한국교회저작권협회 메일(koreancca@gmail.com)이나 팩스(02-516-0288)로 발송하면 된다.

한편 영상 예배가 여의치 않은 교회는 카카오톡TV라이브나 유튜브에서 ‘예장통합 예배날짜’로 검색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고티플닷컴(www.godpeople.com)에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최은숙 기자

이단 교리의 모순, 책으로 읽는다

3월 독서문화캠페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3월의 설레임은 잠시 뒤로 미뤄둬야 하지만 그 빈자리를 대신 ‘책 읽기’로 달래보자.

본보는 ‘책’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를 주제로 이달의 독서문화캠페인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면으로 떠오른 신천지에 대한 책이다. ‘신천지 대해부’ (박유신/기독교포탈뉴스)는 신천지측 3대 서적 ‘요한계시록의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천지창조’ 중 하나인 ‘천지창조’를 현미경으로 살살이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저자의 전공인 조직신학적 기반 위에서 신천지 교리의 허점과 모순을 성경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호와와의 증언에 관한 책도 있다. ‘여호와와의 증언의 정제와 상담’ (전용식/비전북)은 여호와와의 증언 신도들을 회심시키는 이단 상담을 위한 책이다. 먼저 여호와와의 증언의 핵심교리들을 그들의 교리를 근거로 확실하게 밝혔고 여호와와의 증언의 교리를 깨는 반증으로 되어있다.

목회자 3명의 저서도 소개한다. ‘감사’ (배창돈/필라)는 제자훈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는 평택대광교회의 성도들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를 알게 해준다. 저자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뿐 아니라 이웃과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면서 “감사 속에는 비밀이 있고 신비로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대문교회 손운탁 목사의 저서 ‘남산길, 닭 울음소리’ (비움과 채움)도 관심을 모은다. 남대문교회 회지 ‘남문밖기쁜소식’에 담긴 저자의 글들을 모아 엮은 이 책은 개인의 소신이나 생각이 아닌 성경



의 말씀을 선포한 글로 저자는 “베드로의 통곡보다 더 큰 심령의 울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냈다”고 밝혔다.

목회자로서 설교문을 준비하는 중에 접하는 주제어들에 대하여 한자의 속뜻을 살펴 재해석한 ‘목회자가 쓴 한자풀이 100자’ (윤용주/로남출판사)는 훈고학의 고전문어학(古文解字)을 1차 자료 등을 참고했으며, 자료 활용을 위해 인용문에는 원문과 출처를 병기했다. 최은숙 기자

우리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만들기 TIP

히즈쇼 영상예배PPT 틀 지원, 영상 제작 노하우 공유



히즈쇼는 각 교회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예배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예배PPT와 영상 제작 노하우와 TIP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예배PPT는 아이들이 매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순서 그대로 제작됐다. 예배의 부름이라 할 수 있는 워십인트로부터 마지막 주기문까지, 어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흐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했다. 히즈쇼 이병목 목사는 “예배PPT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준비된 기도송, 봉헌송 그리

어린이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즈쇼’ (His Show)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 능어촌 교회의 교회학교들을 위해 ‘우리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만들기’를 제공한다.

히즈쇼는 각 교회에서도 효과적인 온라인 예배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예배PPT와 영상 제작 노하우와 TIP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예배PPT는 아이들이 매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순서 그대로 제작됐다. 예배의 부름이라 할 수 있는 워십인트로부터 마지막 주기문까지, 어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흐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했다.

히즈쇼 이병목 목사는 “예배PPT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

고 주기문문이 추가되어 아이들은 온라인에서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 예배PPT를 중심으로 각 교회 교역자와 교사들은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온라인 예배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자료는 히즈쇼 홈페이지(http://www.hisshow.co.kr)와 히즈쇼공식 블로그를 통해 신청 및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은숙 기자

크리스찬 문학읽기

⑥ 천희란의 ‘영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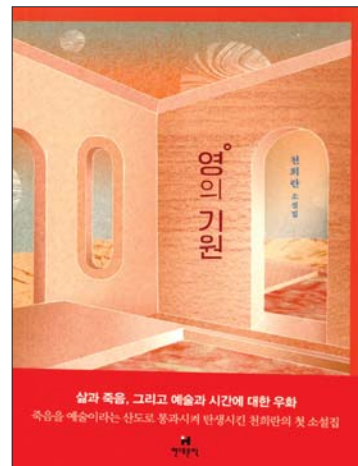
죽음으로 가득한 책을 쓰는 이유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가능하다. 이 소설집을 읽으며, 필자는 한국문학에서 죽음을 무겁게 다룬 두 편의 글을 떠올렸다. 먼저, 이미 세상을 떠난 작가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 그는 고국을 떠나 먼 나라 캐나다에서 병원 사체실 청소 부 일을 하면서까지 죽음을 다가가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탐구에 진력했다. 그 결과물로 얻은 소설에서 작가는 기독교적 사유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불교와 원시종교의 세계를 넘나드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작가의 반대편 상

상력에도 불구하고 죽음 자체는 독자들에 가슴에 처절한 고뇌의 문제로 쏠려졌다. 최근 김영현 작가는 ‘죽음에 관한 유쾌한 명상’이란 에세이집을 내고 죽음이 삶의 위안이 되는 깨달음을 전해 주려 했다. 그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은 죽음에서 유쾌한 느낌을 받았다기보다 삶을 성찰한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소설집은 천희란 작가의 단편소설 위 두 작품을 크리스찬 문학의 영역 안에 둘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영의 기원’도 이런 논

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희란(1984-)이라는 젊은 작가가 처음으로 낸 이 소설집은 죽음의 주제를 다룬 근본 바탕에 영혼과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정신이 깔려있다는 사실이다. 죽음에 관한 기독교적 탐구를 시작한 이 작가는 인간 정신의 구원이라는 길 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집은 천희란 작가의 단편소설 8편을 한데 묶은 책이며, ‘영의 기원’은 표제작으로서 죽음의 성찰에 대한 일종의 예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영’은 죽은 친구의 이름인 한자 ‘영(靈)’에서나



‘애연자들’과 ‘신앙의 계보’라는 두 작품이다. ‘애연자들’은 종말의 날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사형을 당하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자는 구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의미의 깨달음 속에서 종말을 기다린 여자는 일종의 자기 구원에 매달린다.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깨달은 예정된 종말과 약속되지 않은 구원을 기다리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신앙의 계보’에서 다루는 주제는 ‘사회적 약자가 강요받는 부당한 죄의식’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P신부는 사제가 되었으나 마음 한구석에 항상 무거운 죄의식을 걱정하지 않은 채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던 사회적 약자로서 강요받는 죄의식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P신부는 따돌림을 당하는 한 아이에게서 자신의 과

거 모습을 본다. 그는 부당한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으려 죽음의 문앞에서 있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이 젊은 작가가 죽음으로 가득한 소설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작가는 “언제나 끝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심은 그 끝이 멀리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대한 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구원을 이루는 그 끝을 향해 발을 내디디고 있지만, 그 지점이 멀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인생의 고통을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다. 구원의 진실과 깨달음을 아직 모르다고 겸손해지는 작가와 함께 우리도 죽음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서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다.



김수중 교수
조선대 명예·
빛누리교회 목사